

진화와 과학의 순수성, 그리고 절반의 진실

- 『세계의 끝과 하드보일드 원더랜드』를 중심으로-

성혜숙*

simple108@hanmail.net

Contents

1. 들어가며
2. 본론
3. 맺으며

Abstract

『世界の終りとハードボイルド・ワンダーランド』(1985)は、村上春樹の小説のなかで比較的初期小説である。今までの先行研究でこの作品は、村上春樹の他の初期作品とのつながりの中で内閉とか死の物語として扱われてきたようである。同じ時期の彼の作品が一つのシリーズとして見なされているが、この作品は特別な位置にある。この作品の特徴としては、二つのストーリーが交差している構造になっている点、そして科学という素材を採用している点があげられる。このうち、科学という素材は、歴史的、或いは社会的状況を考慮して考察する必要があると思われる。

主に扱われている科学の素材は、コンピューターと進化論である。進化論は『種の起源』から始まっていることからして<近代>を示しているし、コンピューターは未来を示していると言えるだろう。科学は<近代>という過去から成立して、未来へ繋がっているといえるだろう。このような科学という素材を通じて、この作品は現代に対しての問題を提起している。

この作品で、進化論のような科学知識は完全に完結した知としてすべてを解明してくれるもののように見えるが、実はそうでないことが示している。しかも科学は完全であると信じられて、科学で解明されたことを疑うことはできない。その結果、科学は一部の事実だけを述べ、他の事実を隠蔽することになる。真理ではないことが真理として機能し、比喩を通じてその論理は正当化されていく。その結果、近代の科学は中世の宗教の代わりにドグマの役割をすることになるのである。また、これは個人の無意識にまで影響を及ぼしている。

『世界の終りとハードボイルド・ワンダーランド』は科学知識の限界を浮き彫りにしてい

* 고려대학교대학원 중일어문학부 일어일문학과 박사과정

る。さらに、この科学知識を生産し、使用する人間がこの限界をどう超えられるのかという問題を提起されている。

Key Words : 進化論、科学、比喩、ドグマ

1. 들어가며

무라카미 하루키(村上春樹)의 『세계의 끝과 하드보일드 원더랜드』(1985)¹⁾는 장편 소설만을 발표 순서대로 거론할 때 초기 삼부작²⁾ 다음으로 발표한 작품이다. 보통 초기 삼부작이 하나의 시리즈로 인식되고, 『댄스댄스댄스』(1988)가 삼부작의 마지막 작품인 『양을 둘러싼 모험』(1982)의 속편으로 간주된다. 이 사이의 시기에 발표된 『세계의 끝과 하드보일드 원더랜드』는 『노르웨이의 숲』(1987)과 함께 다른 작품들과는 독립된 것으로 다루어진다.

『세계의 끝과 하드보일드 원더랜드』가 무라카미 하루키의 다른 초기 작품과 극명하게 차이를 보이는 것은 형식의 측면에서 찾아 볼 때 이중의 이야기의 교차구조³⁾와 소재적 측면에서 과학이라는 소재 채용을 꼽을 수 있겠다.

교차구조는 독특하다는 점에서 형식적 기교임에는 분명하지만, 작품의 주제와도 밀접한 관련을 갖고 있다. 스즈무라 가즈나리(鈴木和成)는 작품의 후반부에 제시된 “동시존재의 정당성”에 대해서 다루면서 이 이중의 교차 구조를 “동시존재의 정당성”에 대한 방법적 시도로 보고 있다⁴⁾. 그러나 다른 한편에서 스

1) 村上春樹, 『世界の終りとハードボイルド・ワンダーランド』, 新潮文庫, 1985. 이하 텍스트라 함.

2) 초기 삼부작은 보통 『바람의 노래를 들어라(風の歌を聞け)』(1979), 『1973년의 핀볼(1973年のピンボール)』(1980), 『양을 둘러싼 모험(羊をめぐる冒険)』(1982)을 가리킨다.

3) 이중의 교차 구조의 형식은 하루키만의 독특한 구조라고는 말할 수 없다. 라틴 작가의 작품 중에도 이러한 형식은 찾아 볼 수 있다는 선행연구의 지적이 있었다(野谷文昭, 『世界の終りとハードボイルドワンダーランド』論—「僕」と「私」のデジャヴュ, 村上春樹スタディーズ02, (若草書房, 1999) p.173). 하루키 작품 내에서만 보면 다른 작품에서도 이 형식이 이용되었다. (예, 『해변의 카프카』)

4) 鈴木和成, 「未だ/既に—村上春樹と「ハードボイルド・ワンダーランド」, 『村上春樹スタディーズ02』(若草書房, 1999), p.15

즈무라는 “동시존재”의 불가능성을 말하고 이 때문에 작가가 “편의적” 사고를 허용하며 결과적 낙관주의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⁵⁾. 이처럼 교차구조라는 형식은 작품의 주제를 해석하는데 중요한 요소로 기능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내용의 측면에서 다른 작품과 비교할 때 이 작품의 특징은 과학이라는 소재 채용에 있다. 작품에서 중심으로 다루어지는 과학 소재는 컴퓨터와 진화론으로, 이 두 소재를 역사적 시각에 넣고 볼 때, 컴퓨터는 가까운 미래, 진화론은 가까운 과거와 연결되어 있다. 특히 진화론이 1859년 『종의기원』 발표로부터 시작되었다는 점에서 보아 가까운 과거라 함은 근대로 생각된다.

이 소재의 특징을 근대부터 현재를 거쳐 가까운 미래의 시간이라는 맥락에서 생각해 보면, 포스트모더니즘⁶⁾ 운동과 연동해서 생각해 볼 수 있다. 『세계의 끝과 하드보일드 원더랜드』가 발표된 1980년대가 포스트모더니즘 운동이 활발⁷⁾했다는 것도 주지의 사실이다. 포스트모더니즘 논의의 시발점이 된 『포스트모던의 조건』⁸⁾의 서문에서 리오타르는 “이 저술의 연구대상은 가장 고도로 발전

5) 鈴木和成, 상계논문, p.14

6) 포스트모던/포스트모더니즘이라는 용어는 지역에 따라 등장한 시기와 의미가 상이하다.

한스 베르텐스에 의하면, 포스트모더니즘이라는 용어는 이미 1870년대 사용되었으며, 1934년과 1939년, 그리고 1940년대에 등장하지만, 1960년대 진행된 포스트모던 논쟁과 연속성을 찾아보기 힘들다. (한스 베르텐스, 『포스트모던의 사상사』(현대미술사, 2000), p.35)

칼리니스쿠에 의하면 미국에서 이 용어가 사용된 것은 1940년대와 50년대이지만, 이 용어가 세계적으로 사용된 것은 영국의 역사가 아놀드 토인비에 의해서이다. 그러나 이후의 논자들은 토인비가 포스트모던 시대의 출발점을 1870년대로 거슬러 올라갔던 것을 무시하고 바로 전후시기에 적용되는 것으로 재해석했다.

제2차 세계대전을 야만성과 파괴력으로 잔인성을 드러낸 악마적 모더니티로 보며 이 때문에 1960년대의 포스트모던이 이전 시기의 정의와는 다르게 재해석되었다고 보고 있다. (M. 칼리니스쿠, 『모더니티의 다섯 얼굴』(시각과 언어, 1993), p.331)

7) 포스트모더니즘 운동은 제2차 세계대전을 반성하고 새로운 시대정신을 찾아내려고 노력한 운동으로 그 기원은 1960년대부터 시작되지만, 1980년대 허버마스(Jürgen Habermas: 1929-)와 같은 전문 철학자들이 포스트모더니즘에 관련된 문제에 관심을 갖기 시작하면서 활발하게 진행되었다.

이와 관련된 논문들을 살펴보면 장 프랑스와 리오타르(Jean Francois Lyotard: 1924-)의 『포스트모던의 조건』(1979), 허버마스의 「근대성 대 탈근대성」(1981), 프레드릭 제임슨(Fredric James)의 「포스트모더니즘과 소비자 사회」(1983) 등이 있다.

8) 『포스트모던의 조건』의 특징 중 리오타르는 미래사회를 컴퓨터를 기반으로 한 정보화 사회로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세계의 끝과 하드보일드 원더랜드』의 소재와 일치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 작품의 발표 당시 컴퓨터가 실제로 그렇게 상용화되어 있지 않다는

한 사회에서의 지식의 조건이다. 나는 이 조건을 기술하기 위해서 포스트모던이라는 연구를 사용하기로 했다. 이 단어는 19세기 말 이래 과학, 문학, 예술 분야의 게임 규칙들을 바꾸어 놓은 여러 변화들과, 그 변화에 따른 현대 서구의 문화 상태를 지칭한다. 본 연구는 이 같은 변화들을 서사의 위기라는 문맥 속에 위치시킨다⁹⁾”고 말하고 있다. 이 책에 촉발되어 하버마스는 “객관적인 과학”의 절대 지배 때문에 근대성이 실패했다고 언급했다¹⁰⁾. 즉 포스트모더니즘 운동은 모던(근대)¹¹⁾의 시대에 대한 반성으로 도그마¹²⁾로서의 지식, 특히 과학에 대한 문제제기가 그 중심을 이루었다고 정리할 수 있다. 이처럼 현대에 있어서 과학이라는 소재가 상징하는 바는 역사적 맥락에서 볼 때 미래보다는 근대와 더 깊은 관련성을 갖고 있다.

본고에서는 『세계의 끝과 하드보일드 원더랜드』에 나타난 진화론과 컴퓨터로 대표되는 ‘과학’이라는 소재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점에서 이 소재의 일치는 『포스트모던의 조건』과 『세계의 끝과 하드보일드 원더랜드』와의 관계성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9) 장 프랑수아 리오타르(1979), 『포스트모던의 조건』, 민음사, p.33

10) 한스 베르텐스의 『포스트모던의 사상사』(현대미학사, 2000), p.173

11) 서구에서 모던의 시대는 18세기 계몽주의로부터 시작된 이성중심주의 시대를 일컫는다. 과학과 기술의 진보, 산업혁명, 그리고 자본주의에 의해 야기된 광범위한 사회 경제적 변화의 산물로, 진보의 원리, 과학과 기술의 유용성에 대한 신뢰, 시간에 대한 관심(상대적으로 중세에는 시간에 대한 개념이 거의 인식되지 못했다), 이성 숭배, 그리고 추상적 인본주의의 틀 안에서 정의되지만 실용주의 내지는 행동과 성공의 숭배를 지향하는 자유의 이상 등이 문명의 핵심적인 가치로 보존되고 증진되어 왔다(M. 칼리니스쿠, 『모더니티의 다섯 얼굴』(시각과 언어, 1993), p.53)

12) 도그마란 본래 그리스도교의 교리를 이르는 말로, 독단(獨斷)이라고 번역되기도 한다. 어원은 그리스어의 동사 ‘dokein(생각하다)’에서 유래한 것으로 ‘의견·결정’을 의미했지만 후에는 철학자의 견해와 학설을 의미했다.

철학적 의미에서는 진리의 인식을 부정하고 오직 진리의 탐구만을 주장하는 고대 회의론자들이 자연에 관한 철학설을 주장하는 사람들을 구분하기 위해 ‘dogmatikoi(定說家)’라고 불렀는데, 근대에 와서 dogmatic, dogmatism이 독단적·독단론(충분한 근거나 증명 없이 일정한 설을 주장하는 것)을 의미하게 된 것도 여기서 유래된 것이다.

본고에서는 철학 용어로, 충분한 근거나 증명 없이 일정한 설을 주장하는 태도라는 의미로 사용하였다.

2. 본론

『세계의 끝과 하드보일드 원더랜드』의 구성을 살펴보면, 전체 40개의 장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이 40개의 장은 「세계의 끝」과 「하드보일드 원더랜드」라는 소제목의 이야기가 교차해서 배열되어 있다. 이 두 개의 이야기는 전혀 다른 시공간을 배경으로 하고 있어 독립된 두 이야기처럼 보이지만, 사건이 전개되면서 동일인물의 사건이라는 점을 알 수 있다. 사건의 내용을 요약하면, 컴퓨터 정보 처리를 직업으로 하는 어떤 “계산사”가 회사 경쟁에 휘말리면서 겪게 되는 사건을 그리고 있는데, 그 과정을 현실세계와 무의식 세계를 분리해서 이중적으로 그려내고 있다. 현실세계를 배경으로 한 것이 「하드보일드 원더랜드」이며 무의식 세계를 배경으로 한 것이 「세계의 끝」이다.

“이해할 수 없다”, “알 수 없다”라는 기술이 반복해서 등장하는 것에서도 알 수 있듯이 텍스트에서 “나”에게 사건은 항상 “정체불명”의 무언가로 등장한다. 이 “정체불명”에 대해 해답을 제시해줄 수 있는 것으로 지적 도그마가 등장하는데, 여기에 해당하는 것이 “조직”, “공장”, “국가”¹³⁾와 같은 조직과 특히 그 조직의 최고위층으로, 이들은 “모든 것을 알고 있다”, 혹은 “모든 것을 알고 있다는 듯한”이라는 수식어를 수반하고 있다. 이 수식어를 정확하게 표현하면, “다른 사람들이 모르는 정보도 알고 있다”고 말할 수 있으며, 이것은 그들이 특정 정보를 독점¹⁴⁾하고 있으며 이 독점을 통해서 도그마로서 존속할 수 있다.

지적 도그마를 상징하는 대표적인 인물로 “박사”를 꼽을 수 있는데, 이 박사의 특징은 다시 진화를 신념으로 삼은 인물이라고 구체화할 수 있다. 또 하나의

13) 여기에서 예로 제시한 표상들은 「하드보일드 원더랜드」의 표상들이다. 「세계의 끝」의 지적 도그마의 표상으로 지적할 수 있는 자는 ‘문지기’와 ‘노인(대령)’을 꼽을 수 있다. 그러나 지적 도그마에 관한 논의에 한해서는 주로 「하드보일드 원더랜드」만을 중심으로 살펴볼 것이다. 그 까닭은 「하드보일드 원더랜드」가 현실세계를 배경으로 하고 있고 「세계의 끝」의 경우 등장인물을 포함해서 사물과 공간 그 자체가 ‘나’라는 개인에 수렴되기 때문이다.

14) 지적 도그마는 지적 독단의 의미를 갖고 있지만 동시에 정보의 독점과 큰 관련이 있다. 정보의 독점을 통해서, 정보를 갖은 자와 갖지 못하는 자의 구분이 생기는데, 이를 통해서 정보 의존과 지적 독단을 가능하게 한다. 정보를 갖지 못한 자는 정보 자체가 없기 때문에 그 정보의 진위 여부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또한 그들은 정보가 필요할 때 정보를 갖은 자(지적 독점자)에게 의존할 수밖에 없다. 지적 독점을 통해서 정보의 통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지적 독점자의 지식은 통제된 정보일 수 있고, 사실과 다를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해 둘 필요가 있다.

지적 도그마의 표상으로 나타나는 것은 “책”이다. 이 때 “책”과 “박사”는 모두 과학, 특히 진화론에 기반을 두고 있다.

1) 객관적 지식으로써의 진화론

「세계의 끝」과 「하드보일드 원더랜드」에 공통적으로 등장하는 것 중 진화와 관련되어 있는 것은 일각수의 두개골과 소리(혹은 음악)이다. 「하드보일드 원더랜드」에서는 일각수의 두개골이 “정체불명”으로 등장한다. ‘나’¹⁵⁾는 이 정체불명의 두개골이 자신이 처한 위기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판단하고 이 정체를 밝히려려고 한다. 이 때 ‘내’가 이 정체를 밝혀줄 정보를 얻기 위해서 선택한 것이 도서관의 책이다. 여기에서 확실한 정보를 제공해주는 권위로서의 책이 상정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텍스트에서 이 책의 내용은 도서관 사서의 설명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이것은 도서관 사서라는 필터에 의해서 왜곡될 가능성도 내포하지만, 이 책의 내용이 도서관 사서에게 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의미 역시 내포하고 있다. 왜곡의 가능성에 대해 생각해 보면, ‘다윈의 진화론’¹⁶⁾이 ‘사회진화론’¹⁷⁾으로 왜곡되어 실

15) 원문 텍스트에서 나는 세 가지 형태로 등장한다. 「하드보일드 원더랜드」의 ‘나’와 「세계의 끝」의 ‘나’와 ‘그림자’이다. 즉 「하드보일드 원더랜드」의 ‘나’가 두 형태로 분리되어 ‘나’와 ‘그림자’를 형성하고 있는데 원문에서는 이 세 존재를 구분하기 위해서 「하드보일드 원더랜드」에서는 <私>로, 「세계의 끝」에서는 <僕>와 <影>로 표현되어 있는데, 번역 과정에서 私와 僕는 모두 ‘나’로 번역되었다. 「세계의 끝」의 ‘나(僕)’는 감정의 부분이 강조되어 나타나는데 반해, 그림자는 이성의 부분이 두드러지게 나타나 주로 판단의 기능을 하고 있다. 그러나 이를 심리학적인 이드(id)와 에고(ego)의 개념으로 설명할 수 있는지는 불분명하여 좀 더 깊은 고찰이 요구될 것으로 보인다.

16) 다윈의 진화론은 중세의 종교로부터 인간을 해방시키는데 큰 기여를 했다. 진화론은 모든 생물은 신의 섭리에 따라서 창조된 것이 아니라 생물의 물리적 특징에 따라서 자연 도태의 과정을 거쳐서 진화해 왔으며 자연도태의 과정 중의 생존경쟁과 적자생존을 통해 이루어진다고 주장함으로써 종교의 창조론(혹은 결정론)에 전면으로 맞섰다. 이러한 진화론은 근대 이전의 종교적 독단에 맞섰기 때문에 서구사회에서 큰 호응을 받았으며 일본이나 한국과 같은 아시아를 비롯해 세계적으로 영향을 끼쳤다.

그러나 이 진화론이 지지받은 중요한 이유 중 하나는 18세기 말부터 성장한 부르주아의 자유 경쟁주의를 지지하는 기반이 될 수 있었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 진화론이 갖는 과학적 지식으로서의 가치 뿐 아니라, 정치와 경제와의 관련성이 깊은 이론이 되었다. 특히 서구사회에서 진화론이 크게 지지받은 직접적인 이유는 경제와의 관련성이 크다고 할 수 있다.

17) 허버트 스펜서의 사회진화론은 다윈의 진화론을 사회에 적용한 이론이다. 그는 사회학 원리를 통해 사회 유기체와 생물학적 유기체의 합일점과 차이점을 제시하고, 진화론적 입장에서

제 힘을 갖는 것은 결국 이 왜곡된 이해였다. 그러한 의미에서 왜곡의 문제는 개인의 문제일 뿐 아니라 사회적 영향력을 행사한다. 영향의 문제는 과학적 지식이 인간의 의식과 판단에 영향을 준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다. 과학적 지식이나 과학의 분야가 전문 분야의 협소한 영역에서만 영향을 끼치는 것이 아니라 사회 전반에 작용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다시 말해서, 사서를 통한 정보의 전달에 있어서 왜곡의 가능성과 영향력이라는 두 요소는 정보를 전달하는 책과 그 정보를 획득하는 독자 사이에 존재하는 왜곡의 가능성을 보여줌과 동시에 그 책의 내용에 영향을 받는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다.

일각수에 대한 참고자료로 두 권의 책이 등장하는데, 보르헤스의 『환수사전』과 버트런트 쿠퍼의 『동물의 고고학』이다¹⁸⁾. 텍스트에서는 이 두 책의 내용이 과도할 정도로 상세¹⁹⁾하게 소개되어 있다. 『환수사전』은 일각수를 상상의 동물이라는 전제에서 전설에 나타난 동서양의 상반되는 기술이며, 『동물의 고고학』²⁰⁾은

단순사회에서 복잡사회로 사회 역시 진화해 간다는 이론이다. 사회진화론은 인류학으로 성장했는데, 이 인류학은 인종의 신체를 측정해서 데이터화시켰다. 특히 외형상 원숭이와 비슷한 인종일수록 진화하지 못한 것으로 간주되었다. 이러한 데이터들은 사실과 다르다는 것이 후에 와서 밝혀졌지만, 당시에는 백인우월주의를 뒷받침하는 근거가 되었으며, 나치스의 유대인 학살이나 제국주의를 합리화시키는 근간이 되었다. (박상진, 『사회진화론과 식민지 사회사상』 (선인, 2003, p.41) 참조)

18) 이 두 권의 책은 텍스트에서 본문 인용 뿐 아니라 책 뒤편에 참고문헌이라는 형식으로 제시되어 있기도 하다. 하지만 일각수와 관련하여 이 두 권의 책은 허구로 보인다. 버트런트 쿠퍼의 『동물의 고고학』은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다. 보르헤스의 『환수사전』의 경우는 1957년에 초판 발행된 동명의 저서가 존재하지만 이 책에는 일각수에 관련된 부분은 존재하지 않다. 이와 관련하여 노야 후미야키(野谷文昭)는 『환수사전』을 인용한 방식이 보르헤스에 대한 오마주라 평가하였다. (野谷文昭, 『世界の終りとハードボイルドワンダーランド』論-「僕」と「私」のデジャヴュ, 『村上春樹スタディーズ02』(若草書房, 1999) p.175)

보르헤스의 「틀린, 우크바르, 오르비스 테르티우스(Tlön, Upbar, Orbis Tertius)」(1940)은 『영미 백과사전』에 실려 있는 「우크바르」 항목에 관한 이야기로, 사실 「우크바르」는 실존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전에 실린 「우크바르」 항목은 사실이라고 해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로 납득 가능한 해설이었다. 이 항목은 누군가에 의해 장시간 설계된 것으로 보이며, 이 설계가 끝났을 때 기존의 『영미 백과사전』 한 질에 삽입하여 책으로 만들었다. 이렇게 하여 사전이라는 사실의 모습 속에 끼워 넣어진 하나의 허구가 사실로 받아들여지는 메커니즘을 갖게 되었다.

이러한 내용으로 볼 때, 『환수사전』이라는 표상은 보르헤스에 대한 오마주 이상의 의미를 갖고 있다.

19) 텍스트 전체 40장 중 한 장인 제9장의 절반이 이 두 책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해당 페이지는 pp.165~180로, 총 15페이지에 이른다. 이 설명은 일각수에 관련된 생체학적 설명 이외에도 일각수에 관련된 신화나 역사적 사건을 포함하고 있다.

실존했던 동물이라는 근거(레닌그라드의 두개골)에서 생체의 기능성에 따라 설명되어 있다. 『환수사전』의 기술이 일각수의 다양성을 보여주는 것에 반해, 진화적 관점에서 다룬 『동물의 고고학』은 일각수를 “기형”이나 “진화상의 고아” 나 “상당한 결함상품”이라는 단일하고도 통합된 가치판단을 내리고 있다. 『환수사전』과 『동물의 고고학』의 차이점은 대상을 판단하는 명확한 기준을 보유하고 있는가 아닌가에 있다. 『환수사전』의 경우는 정보를 수집하는 기준을 갖고 있지만(일각수인가 아닌가) 대상의 가치를 판단하는 기준을 갖고 있지 않다. 이에 비해, 『동물의 고고학』은 대상이 진화상 퇴화물인가 진화물인가에 관한 가치 판단 기준을 갖고 있다.

『동물의 고고학』은 일각수가 상당한 결함상품이라는 결론에 이르는 논증을 세세하게 기술하고 있는데, 그 논증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동물의 고고학』은 대전제로써 쌍을 생존의 조건으로 보고 쌍이 아닌 단일 기관은 도태의 조건으로 보고 있다. 그 근거로 ‘신체기관은 좌우 밸런스를 잡기 위해서 모두 한 쌍’으로 되어 있으며, 쌍이 아닌 ‘배꼽은 퇴화기관’이라고 설명한다. 페니스의 경우는 ‘롤빵과 소시지’처럼 한 쌍이기 때문에 하나로 볼 수 없다고 설명되어 있다. 이러한 근거를 바탕으로 할 때 쌍이 아닌 단일 기관은 진화상 도태의 조건이라는 일차적 결론을 얻을 수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일각수의 일각은 균형을 잡기 어렵게 만들어 운동성을 떨어뜨린다. 또한 필연적으로 근시로 만들며, 공격무기라는 측면에서는 ‘스페어 타이어 없이 사막을 횡단’하는 것 같다고 설명된다. 쌍이 아니라 하나라는 것이 먼저 근원적인 문제로 지적되고, 이를 기반으로 다양한 측면에서 단일기관인 일각의 문제점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이 논증의 과정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그 예로 페니스의 대한

20) 이 책의 내용은, 진화론적 관점에서 일각수의 물리적 특징에 관한 자료를 제공하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일각수와 관련된 역사적 기술이 장황하게 설명되어 있다. 특히 이 일각수라는 두개골을 자료로 과학적인 연구가 정치적 상황에 의해서 부정되는 학계에 관한 설명이 그려져 있다. 여기에서 알 수 있는 것은 어떤 주장을 객관적 사실로 인정하든 부정하든 지적 도그마를 형성하는 기준을 제공하는 학계가 그려져 있으며, 그 학계가 어떤 주장을 사실로 인정하는 과정이 객관적인 논리나 근거만을 바탕으로 하기보다는 오히려 정치적 알력이 크게 작용하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논증을 살펴보겠다. 하나의 단일 개체 안에서 페니스는 단일 기관이다. 따라서 페니스 역시 일각과 마찬가지로 신체의 균형을 잡는다는 측면에서는 장애의 요소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페니스는 인간의 종을 유지하는 생식기관으로 진화상에서 생식이 필수불가결한 요소²¹⁾라고 했을 때 페니스를 진화상 퇴화기관으로 규정할 수 없다. 따라서 단일기관이지만 퇴화기관으로 규정할 수 없는 페니스의 존재는 위 논증의 대전제인 ‘쌍이 아닌 단일기관’이 도태의 조건이라는 명제를 부정하는 근거가 된다. 이 전제를 부정하지 않기 위해서는 페니스가 쌍으로 이루어져 있어야 할 필요성이 있었고, 여성의 성 기관을 다른 쌍으로 제시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이러한 논증에 비유가 자주 사용되고 있다는 사실도 특징적이다. 텍스트에서 비유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사용되고 있는데, 다른 한편에서는 오해를 일으킬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 비유란 서로 다른 대상의 각각의 공통점과 차이점 중에서 공통점만을 강조해서 설명하는 방법이다. 즉, 이 공통점을 단서로 해서 이미 알고 있는 것을 통해 “정체불명의 것”의 특징을 파악하게 하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비유는 유사점만을 강조하고 차이점은 지적하지 않기 때문에, 서로 다른 두 대상을 동일한 것으로 간주하기 쉽게 만든다는 문제가 있다. 따라서 비유는 잘못된 정보를 전달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설명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²²⁾. 텍스트의 설명에서도 이러한 오류의 예를 확인할 수 있다. 일각

21) 진화는 보통 한 개체의 생년 기관에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 세대를 거쳐 일어난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렇기 때문에 한 종이 진화하기 위해서는 자손의 번식, 즉 생식은 매우 중요한 전제라 할 수 있다.

22) 비유가 학문의 영역에서 논증 과정 상 사용될 때 그 논증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것 같지는 않다. 그 한 예로서 서양의 경우 자주 사용되는 거인과 난장이에 관한 비유를 들 수 있다. 이 비유는 진보에 대한 근대인들의 자성적인 비유로 사용되는 경우가 많았는데, 17세기 후반 로버트 버턴(Robert Burton)은 「우울증 해부」(1961)에서 이 비유를 사용하고 있다. 이러한 비유의 기능에 대해서 M. 칼리니스쿠는 다음과 같이 언급하고 있다.

“우리는 이 무렵 이 오래된 비유가 다소 관례적인 장치가 돼버려 어떤 저자가 그것을 이용하여 지식의 영역에서 자신이 한 일을 정당화 시키고자 했을 것이라고 짐작한다. (중략) 그러나 이 경우에도 그 비유는 진보의 철학을 전달하기 위해서라기보다는 선배 사상가들과 과학자들에 대한 개인적인 겸손과 감사 그리고 존경심을 표현하기 위해 쓰였던 것으로 보인다.” (M. 칼리니스쿠, 『모더니티의 다섯 얼굴』(시각과 언어, 1993), p.27)

이러한 지적에서 알 수 있는 것은 비유가, 객관적인 지식을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존경심이나 감사와 같은 자의적인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사용되거나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사용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과 ‘스페어 타이어 없이 사막을 횡단’하는 것을 동일시하여 일각수의 단점을 강조하고 있으며, 다른 가능성에 대해서는 재고하지 않고 있다. 사실 생체에 단일 기관이 불리하다는 주장은 반론²³⁾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텍스트 안에서는 “과연”이라는 ‘나’의 동의가 나타나 그럴 듯한 설명으로 간주된다.

『동물의 고고학』이 일각수를 객관적인 근거(실제로 발견된 두개골이나 발견된 장소의 특징)를 바탕으로 하여 하나의 결론에 도달하려고 하고 이 결론이 하나의 신뢰할만한 정보로 받아들여지고 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기본적으로 『동물의 고고학』은 과학적 방법을 택하고 있고, 구체적으로는 진화론적 관점을 갖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 논증과정에서 알 수 있듯이, 논증 자체의 결합이 존재하고 이 결합이 잘못된 결론에 이를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 논증의 결합의 원인 중 하나로 인식 능력의 한계를 생각해 볼 수 있다. 대상을 분석할 때 생물학적 특성만을 분석대상으로 하여 아직 확인되지 않은 반증이 고려되지 않아 그 결론이 불완전하다. 또한 이 논증과정에서 비유가 사용되고 있는데 이 비유가 항상 적절하지는 않다²⁴⁾. 그러나 몇 가지의 적절한 비유는 모든 비유를 적절한 것으로 일반화하여, 결국 동일하지 않은 것까지도 동일시하게 만들기 쉽다. 다시 말해서 『동물의 고고학』의 결론은 불완전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론의 불완전성에 대한 재고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한번 형성된 대전제는 반증을 허락하지 않는다²⁵⁾.

23) 먼저, 페니스의 경우 신체의 밸런스를 잡는 데에는 단각과 마찬가지로 단일 기관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단각이 밸런스를 잡는데 문제를 일으킨다면 페니스 역시 마찬가지로 할 수 있다. 또한 단일 기관이 밸런스를 잡는데 문제가 있다는 전제는 옳지 않다. 단일 기관인 꼬리를 가진 동물들이 현재 다수 존재하며, 이 꼬리는 오히려 신체의 균형을 잡는 기능을 한다. 그 대표적인 예로 고양이를 들 수 있다.

또한 위의 논리는 천적에 대한 고려(폭력에 대한 자기 방어능력)만이 고려되어 있다는 점도 주목할 만하다. 진화론에서 자연 도태의 선택기제는, 환경 적응력과 천적에 대한 방어력, 번식력 등 다양한 원인이 작용한다. 예를 들어서 잔디와 같은 자기 방어력이 없는 존재는 강한 번식력으로 멸종하지 않을 수 있다. 이러한 반증을 고려할 때, 『동물의 고고학』의 견해는 설득력이 부족하다.

그러나 여기에서 문제는 『동물의 고고학』의 논리적 결합이 아니라 이러한 논리적 결합을 갖고 있는 서적들이 존재하며, 그 서적들이 지적 권위를 갖고 독자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한다는 점에 있다.

24) ‘물빵과 소시지처럼’의 경우가 그 대표적인 예라 할 수 있다.

25) 모든 신체 기관은 쌍으로 되어 있고 쌍이 아닌 단일기관은 퇴화기관이라는 것이 진실로 다른 기관을 평가하는 논증에서 이 진실은 하나의 대전제로 기능한다. 그 반증의 예로써는 페니

반증을 허락하지 않는다는 의미에서 과학이 지적 도그마의 역할을 하고 있다. 그리고 과학을 통해 얻어진 결론은 ‘진실’로서 기능하며 따라서 개개인에게 신뢰할만한 정보로 기능하여 그들의 의식에까지 영향을 미친다. 한번 확립된 과학적 견해는 이후의 대상을 관찰하고, 분석하고, 판단하는데 기준으로 작용하게 된다. 따라서 “희귀함”이나 돌연변이라는 사실이 “기형”, “진화상의 고아”, “상당한 결함상품”이라는 폭력적인 가치판단으로 이어진다. 그리고 이러한 가치판단은 개개인에게 판단의 기준으로 작용하게 된다.

지적 권위자로 볼 수 있는 박사는 근거도 제시하지 않은 채, 소리에 대해서 “불필요할 뿐 아니라 유해하다”²⁶⁾는 가치 판단을 내린다. 박사의 판단 근거를 추측해보면 소음이라는 측면에서는 납득 가능할 것이다. 이러한 박사의 견해에 ‘나’는 수동적인 동의를 하지만, 완전하게 동의하지 못한다. ‘나’는 “정당한 소리” 또는 “진화가 됐건 뒤편이 됐건 역시 세계는 이런 저런 소리로 가득 채워져 있어야 하는 것이다”²⁷⁾라고 생각한다. 이처럼 박사에 소리에 관한 견해에 대한 상반된 견해가 소극적으로 제시되어 있다²⁸⁾. 또한 일각수에 대한 진화론의 설명에 대해서 부정하지는 않지만 일각수의 두개골이 포격으로 분실되었다는 결론에 이르자 나는 “그럼, 무엇 하나 확실한 것은 없군”이라고 말하면서 의구심을 표시한다. 즉, 책의 설명은 어디까지나 하나의 가설이라는 점이 암시되어 있다.

2) 폭력적 진화와 그 불안정한 정당화

텍스트에서 죽음에 직면한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 박사를 찾아가 간다. 즉, 박사는 앞에서 책과 동일한 역할(“정체불명”에 대한 명확한 답을 알

스를 들 수 있다. 그러나 대전제에 대한 확신 때문에 페니스의 경우는 반증의 예로서 다루어지지 않았고, 오히려 단일 기관을 쌍으로 확정했다.

26) 「そう。まったくの無音になるんです。何故なら人間の進化にとって音声は不要であるばかりか、有害だからです。だから早晩音声は消滅する。」(텍스트 상, p.85)

27) 텍스트 상, p.119

28) 「세계의 끝」에서 소리는 음악, 노래의 형식을 통해서 마을의 부당함을 보여주는 중요한 단서로 제시되고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소극적 제시나 암시로 생각할 수 없다. 그러나 「하드보일드 윈터랜드」에 한해서는 다만 상대의 견해에 “과연”이라는 방식으로 동의의 표현을 하거나, “잘 모르겠다”는 방식으로 의사 표명을 회피하고 있고, 반대 견해에 대해서는 속으로 자기 자신에게만 말할 뿐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소극적이라고 말할 수 있다.

고 있는 존재)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박사는 ‘내’가 직면한 문제가 조직에 의해서 기획되고 박사에 의해서 실행된 실험과 관련되어 있다고 말한다. 사실 박사는 조직의 프로젝트의 책임자로 ‘내’가 받은 어떤 시술을 기획하고 실행한 자였는데, 이 실험에서 ‘나’는 유일한 성공 사례이며 이 때문에 나는 과학의 발전과 조직의 발전을 위해서 표본으로 사용될 운명에 처해 있다고 설명한다. 만약 표본으로 사용될 경우에 ‘나’의 인간으로서의 권리는 심각하게 침해당할 것이다. 이를 막기 위해 박사는 단독으로 ‘나’에게 어떤 처치를 했으나 그 처치 역시 하나의 실험으로 그 결과 ‘나’는 죽음에 직면하게 되었다.

여기에서 알 수 있는 것은 정보를 보유하지 못한 나와 같은 존재들이 정보 보유자의 이익(박사의 경우에는 지적 호기심이라는 이익)에 의해서 죽음과 같은 돌이킬 수 없는 폭력에 희생될 운명에 처해 있음이 나타난다. 이 때 이러한 폭력이 어떻게 정당화되고 있는지에 관해 박사를 통해서 살펴보자.

박사는 폭력을 진화와 자연재해를 통해서 정당화시키고자 한다. 박사는 진화를 “괴롭고 쓸쓸하다”, “즐거운 진화는 있을 수 없다”고 말하면서 진화가 가진 폭력성을 인정한다. 그러나 이렇게 진화의 부정적인 면이 인정되어도 진화를 통제할 능력이 인간에게는 없다는 전제조건 하에서 이 문제를 극복할 가능성은 원천봉쇄 되어 있다. 박사는 진화의 엄격함은 선택불가능성에 있다고 말하면서 “그것은 홍수와 눈사태나 지진 등에 속하는 것”²⁹⁾이라고 말함으로써 진화에 대한 통제 불가능성이라는 대전제를 다시 자연 재해에 대한 비유를 통해 주장한다. 여기서 다시 비유의 문제가 등장한다.

진화를 자연현상에 비유하면서도 그 폭력성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는 것과 같은 맥락에서, 과학 기술 역시 그 폭력성은 인정되지만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것으로 표현된다. 그러나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이유에 대해서는 명확한 설명이 제시되지 않는다. 다만 순수성을 통해서 그 정당화가 부어질 뿐이다. 자연이나 과학의 순수성의 공통점으로 그것이 위협적이긴 하지만 그 위협에 어떤 의도가 포함되어 있지 않다고 박사는 주장한다.

29) 「それは選り好みできんということですな。誰にも進化を選り好みすることができん。それは洪水とか雪崩とか地震とかに類することです。やってくるまではわからんし、やってきてからは抗いようがない。」(텍스트 상, p.87)

“정말 미안합니다. 나는 다만 과학의 순수성이라는 것이 때때로 많은 사람들을 상처 입히는 일이 있다는 것을 말하고 싶었습니다. 그것은 모든 순수한 자연현상이 어떤 경우 사람들을 상처 입히는 것과 같습니다. —중략— 그렇다고 그러한 종류의 자연현상이 악인가하면.....”³⁰⁾

박사는 과학의 순수성을 자연재해에 비교하면서 그것을 통제할 수 없다고 보아, 설사 과학이 개인을 상처 입힌다 할지라도 ‘악’이라는 등의 가치평가는 할 수 없다고 말한다. 박사는 비유를 통해 서로 다른 과학과 자연재해를 동일한 것으로 제시하여 자연재해의 “의도 없음”을 통해 과학의 “악의 없음”을 주장하고 있다. 먼저 자연 현상이 하나의 물리적 현상일 뿐으로 어떠한 의도도 갖지 못한다는 것은 근대의 과학에 근거하여 명백한 주장으로 받아들여진다는 특징이 있다³¹⁾. 그러나 과학 기술은 자연 현상이 아니라, 인간의 의도에 의해서 생성 발전되는 것이라는 차이점을 갖고 있다. 이러한 차이점에도 불구하고, 명확한 근거도 없이 다만 비유를 통해 두 대상을 동일시하여 제시함으로써 과학 기술의 의도성과 그에 수반되는 책임의 문제를 부정하고 있다. 나아가 과학 기술의 책임 소재를 부정함으로써, 그 과학 기술을 생산 발전시킨 인간의 책임문제를 부정할 수 있는 바탕을 만들고 있다. 박사는 자연재해에서 진화로 미끄러졌던 것처럼, 과학의 순수성에서 과학자의 호기심으로 한없이 미끄러지고 있다. 이러한 논리 때문에, 박사 자신이 ‘나’를 비롯한 많은 사람들에게 실험적으로 행한 위험한 수술을 할 수 있었고, 이에 대해서 직접적인 책임을 느끼지 않을 수 있었다.

이러한 비유의 문제는 행위 주체의 책임을 회피한다는 측면 이외에도 행위의 피해자들을 포함해 모든 사람들이 결과의 폭력성에 체념하도록 만들기도 한다. 즉, 부당한 문제에 대해서 책임자를 사라지게 만드는 위와 같은 논리는 문제를 해결할 통로를 차단해 버린다.

사실 박사 역시 진화는 자연현상이 아니라 의도적인 인간의 행위라는 점을

30) 「どうも失礼、私はただ科学純粋性というものごととして多くの人を傷つけることがあるといたかったです。それはあらゆる純粋な自然現象がある場合に人々を傷つけるのと同じことです。(略)しからばそのような類いの自然現象が悪かと言えば……。」(텍스트 하, p.75)

31) 근대 이전의 자연재해는 동서양을 막론하고 많은 지역에서 신의 뜻으로 여겨졌다. 이것이 과학주의의 발달로 신의 존재가 부정되면서 자연 재해를 누구의 의도에 의한 것이 아닌 물리적 현상으로 간주하게 되었다는 것은 말할 필요도 없을 것이다.

인식하고 있다는 것이 다른 장면에서 드러난다. 박사는 의도적으로 손녀딸에게 “퇴화로 이어지는 것은 모두 금지”³²⁾했다. 따라서 진화가 자연현상과 동일하다는 박사의 주장은 스스로에 의해 부정되고 있다. 박사는 생체실험에 참가한 것과 자기 멋대로 제3회로를 추가한 것에 대해서 변명하면서, 과학의 순수성을 주장하고 나치의 유태인의 생체실험을 증오하지만 과학자의 마음은 모두 같다고 언급³³⁾했다. 그러나 그의 논리 밖에서 생각해 볼 때, 유태인에 대한 생체실험은 오히려 박사의 주장을 전복시키는 하나의 근거가 된다. 박사가 소리를 유해한 것으로 판단하고, 이를 금지시킨 것과 똑같은 방식³⁴⁾으로 유태인 학살은 이루어졌다. 박사가 유태인 학살을 증오한다면 스스로의 규율도 부정되어야 한다. 또한 박사의 금지나, 나치스의 정책과 같은 제도적 장치에 의해서 과학적 사실이 사회에 영향력을 행사한다는 점은, 박사가 과학의 순수성이나 과학자의 호기심을 정당화 시켰던 대전제를 부정하는 증거가 된다. 제도적 장치라는 것은 자연현상이 아니며, 통제 불가능한 대상이기는 커녕 오히려 통제 수단이다. 박사는 이와 같은 내부 모순을 가지고 있으며, 이 모순과 함께 진화나 과학적 순수성에 대한 그의 견해는 객관적 사실이라고 할 수 없다.

32) 「退化にむすびつくことはすべて禁止されてるの」 텍스트 상, p.94

33) 「いや、そう言われると私は面目ないです。実に面目ない。しかしあなたにはおわかりにならないでしょうが、科学者の好奇心というものはなかなか抑えきれないものなんです。ナチスに協力した生体学者たちが強制収容所で行った数々の生体実験を私ももちろん憎んでおりますが、心の底からはどうせやるならどうしてもう少し手際良く効果的にやれなかったのかとも思います。生体を対象とする科学者の考えておることは心の底ではみんな同じようなものです。」 텍스트 하, p.93

34) 앞서 주 10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사회진화설에서 발달한 인류학이 인간을 서열화하는 기준을 제공했다. 이 데이터는 잘못된 비유관계를 논리적 근거로 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에 관한 정확한 확인 없이 이 기준이 적용되었다. 당시 독일 내에서는 이러한 기준에 의해 유태인이 열등하고 따라서 유해하다고 판단되어, 유태인의 격리나 학살이 정당한 것으로 생각되고 조직적으로 이루어졌다. 박사는 역시 뚜렷한 근거 없이 소리를 진화상 도태물로 보고 인위적으로 제거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어, 소리 뽑기와 같은 기계를 만들고 손녀에게 진화에 거스르는 모든 것을 금지시켰다. 나치스의 유태인 학살과 박사의 금지 규칙은, 첫째, 그 근거가 불충분하다는 것, 둘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폭력을 정당한 것으로 여기고 자행한다는 점에서 공통점을 갖는다.

3) 허위의 폭로

이러한 과학적 지식이 인간의 무의식에까지 미친 결과를 「세계의 끝」에서 발견할 수 있다. 「세계의 끝」은 주인공 ‘나’의 의식의 핵, 즉 무의식 세계이다. ‘나’를 경계로 할 때 외부세계는 「하드보일드 원더랜드」, 내부세계는 「세계의 끝」에 해당한다. 그러나 「세계의 끝」은 그것 자체만으로는 무의식세계라는 것을 알기 힘들다. 「하드보일드 원더랜드」에 나타나는 단서들³⁵⁾ 없이는 “세계의 끝”이 무의식세계인지 이공간인지 구분하기 어렵다. 오히려 “세계의 끝”이야말로 원더랜드, 즉 이공간처럼 보인다. 「세계의 끝」은 별개의 공간인 「하드보일드 원더랜드」와의 많은 유사성을 갖고 있는데³⁶⁾, 진화상 도태생물인 일각수에 대한 태도 역시 유사하다.

“어째서 그렇게 간단히 죽어버리는 겁니까?”

“약해서지. 추위와 굶주림에 맡아. 옛날부터 죽 그랬어.”³⁷⁾

일각수의 죽음에 대한 나의 질문에 위와 같이 문지기가 대답한다. 위의 인용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일각수의 죽음의 이유는 약함이라는 일각수 자체의 내부 요인으로 규정되어 있고, “옛날부터 죽 그랬다”는 귀납적 근거가 뒷받침되어

35) 예를 들어서, ‘나’의 의식의 핵을 불러오는 암호가 “세계의 끝”이라는 것, 그리고 ‘세계의 끝’에 대한 박사의 설명에서 확인할 수 있다.

36) 기존의 연구에서는 두 개의 공간의 차이성에 대한 논의가 주를 이루었다. 두 개의 상반된 공간으로 인식되는데, 현실세계와 내폐의 세계(加藤典大, 「内閉という主体の発見」, 『イエローページ』(荒地出版社, 1997) p.92), 불안전성과 완전성(鈴木和成, 전제논문, p.15), “표층적 자기와 무의식적”(川本三朗, 「村上春樹のパラレル・ワールド」, 『村上春樹スタディズ 02』(若草書房, 1999), p.42) 자기 등 이항대립적으로 해석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동시에 이 이항 대립적 세계가 연결되어 있다는 점도 함께 제시되는 경우가 많다. 스즈무라 가즈나리의 경우는 “동시존재의 정당성”의 문제를 논하면서 이 두 세계의 연결고리를 해석해내려고 했으며(鈴木和成, 전제논문, p.14), 가와모토 사부로(川本三朗)는 초기의 이분법으로 출발한 두 세계를 불명료하게 애매하게 혼탁한 세계로 용해해가려고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川本三朗, 상제논문, p.43). 즉 기존의 선행연구들은 두 세계를 대립하는 두 세계로 보고, 이 두 세계 사이의 진자 운동을 통해서 통합해나가려고 한다고 해석하고 있다. 그러나 두 세계가 동일한 논리에 의해 지배되고 있다는 공통점에 본고는 주목하고자 한다.

37) 「何故そんなに簡単に死んでしまうんですか」(略)

「弱いんだ。寒さと飢えにね。昔からずっとそうだった。」(텍스트 상, p.345)

자연스러운 것으로 그려지고 있다. “나”는 이 자연스러운 죽음을 조금이라도 줄이기 위해 조치를 취하지 않는지 질문하지만, 일각수의 성질이라는 또 다른 내부 요인이 주어지고, 일각수 스스로 그 죽음을 원하며 심지어 죽음이 그들에게 있어서 구원³⁸⁾이라고까지 설명된다. 이것은 「하드보일드 윈더랜드」의 『동물의 고고학』에서 자연도태의 원인을 생물학적 내부 요인에서 찾는 것과 동일하다. 앞서 『동물의 고고학』이 진화론에 근거한 논리에 의해 대상을 분석하고 있음은 이미 살펴보았다. 그리고 도서관 사서에 의해 설명이 제시된 것에서 이 책으로 대표되는 지식이 개인에게 영향을 끼치고 있음을 살펴보았었다. 텍스트에서 진화론이 개개인의 사고에 미치는 영향의 가능성에 대해서 제시되어 있다고 한다면, 위 인용에서 보이는 것처럼 외부세계의 논리와의 공통점은 외부 세계의 진화론이 인간의 무의식에까지 미치고 있는 영향을 보여주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세계의 끝’이라는 무의식적 공간에서도 진화론은 이 공간을 지배하는 원리로 나타난다. 그러나 텍스트 마지막에서 일각수의 죽음에 대한 마을사람들의 설명이 모두 진실과 다르다는 것이 그림자에 의해 폭로된다.

“그들을 죽이는 것은 겨울의 추위도 식량 부족도 아니야. 그들을 죽이는 것은 마을이 떠맡긴 자아의 무기다. 그리고 봄이 오면 새로운 짐승들이 태어난다. 죽은 짐승의 수만큼 새로운 새끼들이 태어나는 거야. 그리고 그 새끼들도 성장하면 사람들에게서 떼어낸 자아를 씹어지고 똑같이 죽어가는 거야. 그것이 완전함의 대가다. 그러한 완전함에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어? 약하고 무력한 것에 모두 떠맡기고 보호되는 완전함에 말야.”(중략)

“그것이 정당하다고 너는 생각하는 거야? 그것이 진정한 세계야? 그것이 진정한 모습이야? 알겠어? 약하고 불완전한 쪽의 입장에서 상황을 보라구. 짐승이나 그림자나 숲속의 사람들의 입장에서 말이야.”³⁹⁾

38) 「どうして獣たちを雪や風や寒さから守ってやらないですか? たいしたものじゃなくてもいいです。屋根やちょっとした囲いがあるだけでずいぶん多くの命が救えますよ。」

「それは無駄というものだよ。」(略) 「もしたとえ小屋を造ってやったところで獣たちはそんなところには入らん。彼らは昔から変わらず大地の眠るものなんだ。たとえそのために命を落とすとしても、彼らは外で寝る。雪や風や寒さを身にまとってな」(略)

「獣たちはまるで進んで苦痛や死を求めているように聞えますね」と僕は言った。

「ある意味ではたしかにそうかもしれんしかし彼らにとっちゃそれが自然だ。寒さや苦しさがな。彼らにとってはあるいはそれが救済なのかもしれん」(テキスト 하, pp.11~12)

일각수의 죽음에 대해 문지기를 포함한 마을 사람들은 신체의 나약함과 같은 내부적인 원인이라고 일관되게 말해왔지만, 그림자는 그 설명은 사실이 아니며 일각수의 죽음의 원인은 죄의식과 같은 자아의 무게 때문이라고 폭로하고 있다. 덧붙여 그림자는 마을 사람들이 평화롭고 안정되게 살 수 있는 이유는 일각수를 포함해서 숲 속 사람들과 같이 마을에서 배제된 약자들의 희생을 통해서라는 점을 설명하며, 이러한 진실이 “자연스러운 일”이고 “옛날부터 계속 그래왔다”는 근거에 의해서 은폐되어 있었다는 것을 폭로하고 있다.

여기에서 비판의 대상이 되는 것은 몇 가지로 나누어서 생각할 수 있다. 먼저, 마을의 원칙에 대한 비판이며, 둘째로 마을의 주민들이 이 원칙을 은폐하고 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마을의 원칙은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일부의 안위를 위해서 약자의 희생을 요구하고, 그 희생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희생의 원인이 약자 내부에 있다는 논리를 강요하고 있다는 점에서 비판할 수 있다. 일각수에게 죄의식 같은 자아의 무게를 짊어지게 만들었다는 부분에서 드러나듯이, 주민들에 대한 비판은 그러한 잘못된 원리에 의존하고 자신의 죄의식을 느끼지 않기 위해서 감정 자체를 포기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비판할 수 있다.

앞서 박사의 경우에도 동일한 비판이 가능하다. 박사와 마을/마을주민은, 스스로의 부당함을 정당화시키기 위해서 명확한 근거 없이 죽음이나 소멸에 대한 원인을 약자의 내부의 문제점이라는 논리를 형성하고, 이러한 논리가 과학의 순수성이나 자연 현상, 혹은 마을의 원리라는 거부할 수 없는 섭리인 것으로 강조하고 있다는 점에서 동일하다.

그런데 여기서 다시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은, 「세계의 끝」에서 ‘세계의 끝’이라는 마을은 ‘나(僕)’의 외부세계이지만, 「하드보일드 윈더랜드」를 포함해서 생각하면 ‘세계의 끝’이 나의 무의식 세계라는 것이다. 즉, ‘세계의 끝’이라는 마을의

39) 「彼らを殺すのは冬の寒さでも食料の不足でもない。彼らを殺すのは街が押しつけた自我の重みなんだ。そして春が来ると新しい獣が生まれる。死んだ獣の数だけ新しい子供が生まれるんだ。そしてその子供たちも成長すると掃き出された人々の自我を背負って同じように死んでいくんだ。それが完全さの代償なんだ。そんな完全さにいったいどんな意味がある？弱い無力なものに何もかも押しつけて保たれるような完全さにさ？」(略)

「それが正しいことだと君は思うのかい？それが本当の世界か？それがものごとのあるべき姿なのかい？いいかい、弱い不完全な方の立場からものをみるんだ。獣や影や森の人々の立場からね。」(텍스트 하, p.222)

부조리함을 지적하는 것은 사회체계에 대한 비판이기도 하지만 ‘나(私)’ 자신에 대한 비판이라 할 수 있다.

「하드보일드 원더랜드」에서 ‘나’는 조직이나 박사와 같은 강자의 폭력적인 권위에 희생되는 약자이자 개인으로서 등장했다. 그러나 그의 특징에 대해서 살펴보면, 자신이 포함되어 있는 조직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자각하고 있으면서도 자신의 안온한 인생을 위해서 그 부적합한 논리에 의존하고 있었다. 도서관 사서가 창녀를 사는 것에 대해서 죄악감을 느끼지 않는다는 질문에서 간단히 없다고 대답하는 ‘나(私)’ 역시 마을 주민들처럼 부당한 논리에 의지하기 위해서 감정⁴⁰⁾이라는 부분을 포기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하드보일드 원더랜드」의 ‘나’와 ‘세계의 끝’은 동일한 존재로 동일한 모순을 갖고 있으며, 따라서 ‘세계의 끝’에 대한 비판은 ‘나(私)’에 대한 비판이다. 즉 「하드보일드 원더랜드」에서 피해자로 등장했던 자신이 「세계의 끝」에서는 스스로가 비난하는 가해자라는 사실이 밝혀진다.

텍스트의 결말에서, 「하드보일드 원더랜드」의 ‘나’는 박사나 조직의 폭력에 대해서 분노하면서도, 결국 문제를 해결해야 할 당사자는 자기 자신이라고 판단하고 이를 받아들여려고 한다. 그리고 그러한 자각을 한 후에야, 비로소 자신의 일상에서 소외당하고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는 존재들에 대해서 자각하게 된다. 그 존재들은 인간들 뿐 아니라 집 앞의 고무나무와 같은 존재에까지 확대되며,

40) 일반적으로 인간의 정신세계를 크게 이성적 판단과 감정적 판단으로 이분화해서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 특히 근대 이후에 과학주의가 발달하면서, 이성적인 측면이 강조되고 이성에 비해 감정은 이성적 판단을 방해하는 무용할 뿐 아니라 방해가 되는 것으로 간주되는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근대가 지나치게 이성을 강조한 나머지 지나친 효율주의를 바탕으로 인권이 유린되는 결과를 빚어내자 이에 관한 반성이 이루어져 현대에 와서는 감정적 측면이 중요시 되는 경향이 있는 것 같다. 예를 들어서 공감이라는 것이 타인이나 다른 대상을 이해하는 중요한 부분으로 인지되기 시작했으며, 감정 자체가 인간의 존재의 가치를 갖는 실체가 아닌가 생각하게 되는 경우이다. 프로이드의 정신분석에서 무의식 세계를 형성하는 이드와 에고, 수퍼 에고 중 인간의 실체는 이드라고 할 수 있으며, 이 이드가 현실 세계에서 적응하기 위해서 형성되는 기술적인 부분이 에고와 수퍼 에고로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가치를 판단하고 도덕적 행동을 하도록 유도하는 중요한 수퍼 에고이며, 이 수행을 실질적으로 추동시키는 것이 에고, 이드는 욕망의 존재로 판단할 수 있는데, 여기에서 이성을 에고나 수퍼 에고에 의한 것으로 생각하기는 어렵지 않지만, 감정의 판단이 어디서 기인하는지 모델을 제시할 수가 없다. 이성과 감정을 설명하기에는 정신분석학적 모델이 적절하지 않은 것 같지만, 감정과 이성에 관련된 분야 자체에 명확한 모델은 아직 제시되지 않았다고 할 수 있다.

그의 고통에 대해서도 눈뜨게 된다.

「세계의 끝」에서는 ‘나’는 그림자를 죽게 하고 마을의 안전지대에 안주하거나 그림자와 함께 마을을 탈출하는 대신에 마을에 남기로 결정한다. 소외자 집단에 들어가는 고통을 당한다 하더라도 자신의 속한 마을의 부당함을 변화시키기로 결심한다.

이러한 결말은 개인과 사회의 관계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보여주면서도, 동시에 사회에 대한 개인의 책임에 대해서 보여주고 있다. 자신이 속한 사회의 부당함이 결국 자신과 직접 결부되어 있음을 강조함과 동시에 그 문제에 대해서 자각하고 변화시켜야 할 당사자는 개인 스스로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3. 맺으며

지금까지 『세계의 끝과 하드보일드 원더랜드』에 나타난 진화와 과학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진화와 과학은 일부의 사실들을 근거로 해서 결론을 도출하기 때문에 잘못된 결론에 도달할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앞서 살펴보았던 하버마스의 지적과 같이 과학에 대한 과도한 믿음은 과학을 도그마로서 기능하게 만들었다. 이 결과 과학에 대한 불신은 허용되지 않으며, 과학만이 대상을 해명해 줄 수 있다고 믿어 과학에만 의존해 왔다.

진화나 과학이 대상에 대한 완전한 해명을 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비유를 통해서 끊임없이 정당화되어 진리로서 기능하게 되는 과정을 확인했다. 이 결과 진화나 과학은 사실에서 신념으로 변화하며 도그마로 변질되었다. 이렇게 도그마로서 기능하게 된 과학은 일부의 진실만을 보여준다는 것을 작품을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리고 이러한 도그마로서의 과학은 개개인의 판단의 기준이 되어 잘못된 가치 판단을 하도록 만들었다. 이러한 진화의 개념이 부당한 피해자를 생산하고, 그 책임을 피해자 자신의 나약함으로 돌리는 이중의 폭력으로 작용하였다.

이 작품은 진화와 과학의 특징은 과학적 지식의 한계를 보여주고 있다. 나아가 이 과학적 지식을 생산하고 사용하는 인간이 이 한계를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제기를 하고 있기도 하다.

과거 과학의 문제는 다양한 특징 전체를 모두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비롯되었다. 그리고 이 확인되지 않은 모든 사실이 존재할지도 모른다는 고려가 없었기 때문에 문제가 되었다. 대상의 모든 것을 한 순간에 깨닫는 것은 인간의 인식능력의 한계 때문에 불가능하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아직 인식되지 않은 모든 것에 대한 존재 가능성을 열어 두고, 현재의 판단이 언제든지 전복 가능한 잠정적인 결론이라는 점을 인정하지 않으면 안 된다. 따라서 더 이상 당연한 것은 존재할 수 없다. 모든 당연한 것은 끊임없이 의심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러한 순간, 우리가 인식하는 현실 세계는 “월더랜드”로 등장하는 것이다.

참고 문헌

- M. 칼리니스쿠(1993) 『모더니티의 다섯 얼굴』, 시각과 언어, p.27, p.53, p.331
 박성진(2003) 『사회진화론과 식민지 사회사상』, 선인, p.41
 장 프랑수아 리오타르(1979) 『포스트모던의 조건』, 민음사, p.33
 한스 베르텐스(2000) 『포스트모던의 사상사』, 현대미학사, p.173
 加藤典大(1997) 「内閉という主体の発見」, 『イエローページ』, 荒地出版社, p.92
 川本三朗(1999) 「村上春樹のパラレル・ワールド」, 『村上春樹スタディーズ02』, 若草書房, p.42
 鈴木和成(1999) 「未だ/既に—村上春樹と「ハードボイルド・ワンダーランド」」, 『村上春樹スタディーズ02』, 若草書房, p.14, p.15
 野谷文昭(1999) 「『世界の終りとハードボイルドワンダーランド』論—「僕」と「私」のデジャヴュ」, 『村上春樹スタディーズ02』, 若草書房, p.173, p.175
 村上春樹(1985) 『世界の終りとハードボイルド・ワンダーランド』, 新潮文庫
 百川敬仁(2004) 『夢野久作—方法としての異界』, 岩波書店, p.229

- ❖ 투고일 : 2007. 6. 30.
- ❖ 심사일 : 2007. 7. 30.
- ❖ 심사완료일 : 2007. 8. 13.